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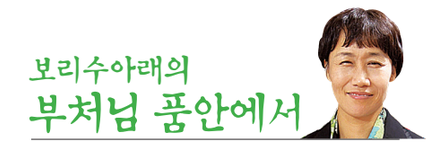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일계나찰(一髻羅刹)



노발을 하나로 묶은 나찰(羅刹)이다. 나찰이란 인도신화에서는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여 두려워하는 악귀로 보고 있다. 후에 불교에서는 수호의 신으로서 관자재보살이 무능승삼매의 경지에 있을 때 화신으로 출현하여 관자재보살의 기능을 구현하여 악귀와 재액을 물리치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

형상: 몸은 청흑색이고, 분노형, 붉은색의 나발에 촉루관을 하고, 3목(三目)과, 4비를 하고, 우제1수는 검을, 제2수는 월부(鉞斧)구를, 좌 제1수는 견삭을, 제2수는 3고저를 가지고 적 연화대좌에 반가부좌를 하고 있다.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㉒ 저시력장애 미영순 · 뇌병변 이경남 씨

자비행 실천하고 쉼없이 공부하는 삶

오늘은 삶의 연륜이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길 하고자 한다.

작은 체구에 미소 띤 얼굴의 은발이 잘 어울리는 미영순 씨는 저시력 장애인이다. 경기여고 재학시절에 망막맥락염으로 저시력 장애를 판정받았다. 그녀에겐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북방연구소 연구위원, 중국 흑룡강성대 객원교수 등 화려한 경력이 있지만, 나는 그녀를 개나리 나무를 닮은 여인이라 말하고 싶다. 미약해 보이지만 강한 의지로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고교 시절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교정의 개나리나무 두 그루 사이에 앉아 사색했다는 그녀는 그 사색의 힘으로 삶의 깊이를 더했고, 그녀의 삶은 저시력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

그녀는 한국저시력인협회 설립자다. 그녀는 1999년 50여 명의 저시력인들과 전국저시력인협회를 만들고 가장 먼저 '약시'로 통용되던 시각장애를 구분해 '저시력'이란 법률 용어로 정착시켰다. 저시력인을 위한 확대 독서기 보급사업과 저시력인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와 저시력 어린이나 저시력 부모 자녀를 위한 심리상담,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김안과병원의 도움으로 매년 저시력인들의 사연을 공모해 시상하고 그 사연을 모은 〈마음으로 보는 세상〉으로 펴내고 있다.

청화 스님과 숭산 스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미영순 씨는 "불교에는 원래 내 것이 없어 나눌 것도 없다"며 "그러니 나눔, 베풂이 아니라, 돌려주고 갚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불심 깊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미영순 씨는 도움을 모두 회향하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이웃을 살핀다. 겨울철이면 저시력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김장김치와 쌀 나눔 행사를 준비한다. 김치와 쌀을 받은 장애인이나 준 미영순 씨나 주고받은 따뜻한 마음으로 겨울은 춥지 않을 것이다.

뇌병변장애를 가진 이경남 씨는 시인이며, 예순 네 살 늦깎이 대학생이다. 이경남 씨는 2020년 봄에 첫 시집 "미안 인생아"를 냈다. 이 시집에는 이경남 씨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면서 60여 년간 산 세월을 넋두리로 푼 낙서와 같이 써온 글들이 좋은 시가 되어 이경남 씨 자신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등대처럼 길 잃은 배의 빛이 되어주었다.

그는 시집의 서문에서 "자신의 아픔과 치부로 점철된 일상의 글이 막상 여러 사람에게 선보인다고 생각하니 부끄럽고 두근거리면서도 기대치 않던 바람이 이루어진 듯 세상 더없는 선물로 가슴이 벅차다"고 밝혔었다. 그 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증명을 받고 예술인 창작지원금도 받으면서 시인으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보리수아래 감성시집에 참여한 작가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보리수아래의 사업의 하나로 예술인 증명을 필수적으로 받게 하고 창작지원금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경남 씨는 2008년 11월 우연한 기회에 히말라야 칼라파트라를 올랐었다. 2008년 11월 히말라야 칼라파트라 등정 이후 국제장애인트레킹협회 창립 발기인으로도 참여했지만 함께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며 빛을 보지 못했다. 당시 힘들었던 마음을 '친구여 그냥 걷자'라는 시로 표현하기도 했다.

2019년 그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장애로 인해 제대로 된 정규교육의 기회도 놓치고, 나이가 들어갈 수록 매사에 자꾸만 뒤로 물러서게 되고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다. 학과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학교문예작품 공모전에도 작품을 내는 등 여러 활동도 하고 있다.

이경남 씨는 손꼽히는 효자이기도 하다. 작년 2월 초에 아버님이 99세로, 올 늦봄에 어머님이 96세로 곁을 떠나셨다. 지난날 누군가가 자신 걱정 때문에 부모님이 눈을 감지 못하실 거라고 한 말이 바위처럼 가슴을 눌렀다고 하는 이경남 씨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했고 임종을 지켰다. 이경남 씨는 지금도 부모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지장기도를 하고 있다. 엊그제 이경남 씨는 전화통화를 하며 아직 깊은 겨울도 아닌데 올해는 많이 춥다고 했다. 아마도 떠나신 부모님의 빈 자리가 크고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돌아볼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리라.

깊은 불심과 자비행 실천으로 세상을 보는 미영순 씨, 현재에 머물지 않고 늦은 공부로 꿈을 이루고 있는 이경남 씨, 두 사람의 수행에 숙연해지면서 한편으로는 두 사람의 나이 듦에 대하여 가슴 한쪽에 무거움이 쌓인다. 보리수아래 부처님 품 안에서 오래도록 두 사람의 동행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발원한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신심 돈독히 수행하며 살아온 미영순 씨와 이경남씨.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